

SW사업 근로환경 개선 동향

이상수 팀장(sslee@nipa.kr)

SW산업본부 SW제도혁신팀

2020. 10. 19

목 차

- I. 주52시간제에 따른 SW사업 근로환경의 변화
- II. SW사업 근로환경 개선의 필요성
- III. SW사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동향
- IV. 시사점

I . 주 52시간제에 따른 SW사업 근로환경의 변화

□ 정부는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‘일·생활 균형 및 1,800 시간대 노동시간 실현’을 국정과제로 삼아 2018년 「근로기준법」 개정

-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특례업종을 축소*하는 내용을 담았으며,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해 2018년 7월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**됨

*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근로시간은 2,05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국가 중 2위로 기록되었으며, 기존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1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음

* 300인 이상(2018.7 시행), 50-300인 미만(2020.1. 시행), 5-50인 미만(2020.7) 시행

[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제한 근로시간]



* 출처 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(2018)

□ 「근로기준법」 개정안 시행 후, 50~299인 기업에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으며, 2020년 현 시점에는 50~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

-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기존 인력의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인력고용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일자리 창출효과 발생, 탄력적 근로시간 적용으로 인한 자율성 확대 등 긍정적 영향을 준 반면,

-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 확대, 근로자의 임금 감소 현상 등의 부정적 영향이 상존하는 상황임

□ SW분야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야근이 일상적일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 직업군으로 분류되어 열악한 근로환경을 이어왔음

- 과도한 하청 업무,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추가개발 요소 발생, SW개발자 인력충원의 어려움, 촉박한 용역기간 등으로 업무과중이 심화됨
- SW기술자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57.3시간으로 타업종 대비 15%를 상회함

[IT산업 노동자 주당 근로시간 조사결과]



※ 출처: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(2013)

- 고용노동부 자료*에 따르면 ICT서비스, SW업은 대체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나, SW분야의 경우 성수기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함

* 출처 : 고용노동부.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 가이드북. 2018.

□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, SW분야의 평균노동시간은 줄어들었지만, 여전히 많은 업무량과 높은 수준의 요구에 업무 피로도가 늘어나는 경우 발생

-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IT노동자의 80.4%가 근무시간이 하루 8~10시간으로 조사되었지만,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휴게시간 감소, 업무량 가중, 여러 업무 동시 수행 등으로 업무 피로도는 높아짐

* 출처 : 한국노동조합총연맹, IT노동자 대상 설문 및 심층 인터뷰 조사결과, 2020.

- 주 52시간 제도의 연장선으로 SW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근로환경 개선이 요구됨

II. SW사업 근로환경 개선의 필요성

- SW분야는 4차 산업혁명의 도구로써 IT 산업을 비롯하여 전체 국가 경제 발전 및 선진화의 핵심동력으로 활용되고 있음
 - 공공, 민간 모든 영역 에서 SW를 도입하고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조직 및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사용됨
 - 또한 금융, 통신, 물류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함
- SW분야의 기업과 생산량은 대체로 증가하고 있지만, SW분야 인력의 경우 증가폭이 크지 않음
 - 2015년 SW기업은 2009년 대비 14.8% 증가하고 SW 생산량은 51.9% 증가한 반면, SW인력은 2009년 대비 8.9% 증가함
 - SW기업 및 생산량 증가에 비해 인력 증가가 크지 않다는 것은 우리나라 SW산업의 근로환경이 열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
- 근로환경의 열악화와 더불어 SW분야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산업경쟁력이 저하되어 저성장 기조에 들어서 있음
 - SW분야 근로환경 열악화를 일으킨 요인은 SW기업 측면에서는 부당한 과업변경 및 인력관리 관행, SW기술자 측면에서는 헤드카운팅 방식*과 관련됨
 - * (헤드카운팅 방식) IT 아웃소싱 특히 SI계약을 진행할 때 개발사의 기술력보다 투입 인력을 우선해 사업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, 'M/M' 계약 방식으로 불리기도 함
 - SW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한 SW기술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지만, 국내 대다수 IT서비스 업계의 열악한 근로환경은 우수 SW기술자 수급의 불균형을 유발하였고, 잦은 인력이탈과 기피직종화를 발생시킴
 - 우리나라의 SW산업 발전의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산업 및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SW기업 및 SW기술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함

Ⅲ. SW사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동향

1

국가 주도의 SW사업 근로환경 개선대책 동향

- SW업계의 주52시간제 안착 및 SW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'SW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'을 발표
 - 적정사업기간 확보, 과업변경절차 개선, 프리랜서 근로환경 개선, SW수발주자 협력 등을 통해 기존 SW기술자의 업무량을 과중시키고 근로환경을 열악화한 요소들의 개선 방안을 마련함
- (적정 사업기간 확보) 발주 조기결정 및 장기계속계약방식 적용 검토를 통해 적정 사업기간 확보
 - 공공SW사업 조달요청 지연 및 단년계약 과다로 사업수행기간 부족
 - 약 84%의 공공SW사업이 2분기 이후 입찰공고 되어 16%의 참여기업이 사업기간 부족 평가('18년 SW실태조사)
 - * 조달요청~계약까지 대체로 3개월 이상 소요, 2분기 입찰시 사업기간 3~6개월 수준
 - 사업기간 1년 이상 공공SW사업(27.4%) 중, 일부(10.4%) 만 장기계속계약을 활용하여 사업기간 추가 확보기회 상실
 - 조달발주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발주시기를 사업수행 전년 9월에 조기 결정하여 적기에 발주를 추진하고, 과기부는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공공 SW사업에 대해 장기계속계약방식 적용검토를 요청함
- (과업변경절차 개선)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 추진
 - 공공SW사업의 과업내용 불명확 등으로 과업변경 초래 및 후속조치 미흡
 - 참여기업 27.3%가 과업변경을 경험했으며, 과업변경의 35.4%가 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발주기관이 독자적으로 진행
 - 과업변경 이후 사업비 및 기간조정 등 후속조치가 미흡함

- 과업변경 가이드 발표,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요건 완화* 및 과업변경 이후 후속조치** 의무화 추진

* (개정안) 4급 → 5급 이상 공무원, 10년 → 6년 이상 SW경력자로 완화

** (1)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기간 및 금액변경 또는 (2) 예산범위 내에서 과업재조정

□ (SW프리랜서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)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

- SW프리랜서(약 2.6만명*)는 주52시간 초과근무 18.8%, 휴가사용곤란 49% 등 처우 열악

* ' 18년 SW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SW산업종사자 약 25만명 중 2.6만명으로 약 10% 차지

- 다단계 고용구조, 불안정 노동, 갑을관계 등 SW프리랜서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황

- SW프리랜서 표준계약서 시범도입 후, 보완 등을 거쳐 보급확대 및 표준 계약서 보급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추진

□ (수요기업, 공급기업 간의 상생도모) 수발주자협의회를 통한 수발주자 간 협력 강화

- 수발주자, 법조·노동전문가, 정부관계자 등으로 주52시간 관련 상생방안 논의를 위한 SW분야 수발주자 협의체 구성·운영

-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 대책 현장 적용방안, 공공SW사업 발주문화 개선방안, SW사업 근로 환경 개선 방안 등 논의

2

시장 Player의 SW사업 근로환경 개선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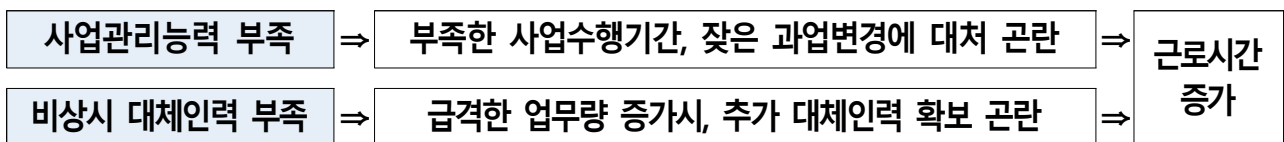
□ 민간(시장) 부문에서는 정부의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주 52시간제가 먼저 적용된 IT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근로환경이 변화함

- IT대기업들은 주 52시간제 대응을 위해 탄력근무제,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고 근태관리 솔루션 등을 활용하여 근로시간을 점검함
- 그러나 핵심인력 근무시간 제약에 따른 프로젝트 리스크 발생, 파견근무 인력에 대한 명확한 근무시간 집계 어려움 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됨
- 금년(2020년)에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50~299인 중소SW기업(1,588개, 전체SW기업 중 8%)은 대기업(216개, 1.1%)에 비해 근로시간 단축에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*

* 주 52시간 초과자 있는 50~299인 사업장 비율(고용노동부, '19.12) : 전체 15.6%

- 정보통신업(18.5%)은 제조(30%)·운수·창고(20%)에 이어 3번째로 높음

- 이는 중소SW기업의 사업관리능력 부족, 대체인력 부족 등에 기인



□ 하청업체 및 프리랜서 SW기술자들의 경우, 별도의 지원·보호 수단이 부족하며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

- 소규모 IT업체 파견근로자 및 프리랜서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업무가 내려와 업무가 과중되고 근무환경이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
-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 뿐만 아니라, 다단계 하청구조 및 불공정한 계약 관행 철폐 등 통한 하청업체 및 프리랜서 SW기술자들의 근본적인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함

IV. 시사점

- SW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견인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산업으로 중요성이 증대
 - 하지만, 과도한 하청 업무,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추가개발 요소 발생, SW 개발자 인력충원의 어려움, 촉박한 용역기간 등으로 SW기술자들은 과중한 업무량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음
 - SW산업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SW기업 및 SW기술자의 불합리한 사업 및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
- SW분야의 주 52시간제 정착 및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과기부 주도 하에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대책을 추진
 - 적정사업기간 확보, 과업변경절차 개선, 프리랜서 근로환경 개선, SW수발주자 협력 등을 통해 기존 SW기술자의 업무량을 과중시키고 근로환경을 열악화한 요소들의 개선 방안 마련
 -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단축 근로시간적용에 따른 사업수행기간 연장, 추가인력 투입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변화한 근로환경에 대한 발주자의 인식개선 필요
- IT업계의 특수한 근로조건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공공·민간의 협의를 통해 제도의 지속적 보완 필요
 - SW분야 주 52시간제의 선도적 정착을 위해,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뿐만 아니라 SW분야에 속한 수발주자, SW기업 및 SW기술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

<참고 문헌>

- 1)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, 2020. 2.
- 2) 관계부처 합동,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, 2019. 12.
- 3) 임동원,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, KERI Brief 18-06, 2018. 7.
- 4) 이종주,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SW업계의 현안, SPRi 산업 동향, 2018. 8.
- 5)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관리 강화 및 원격개발 활성화 추진, 2020. 8.
- 6) 조성일, 주 52시간 근무제도, 일하는 방식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촉진제, POSRI 이슈리포트, 2019. 4
- 7) 유재홍 등 3명,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 인력의 근로 실태 연구, SPRi 연구 보고서, 2019. 1
- 8) '공공SW사업 수·발주자협의회' 발족..."SW 업계 주52시간 안착 속도 높인다", 2020. 2.
- 9) 'IT노동자 절반 하루 한 시간도 못쉰다', 2019. 11
- 10) '52시간 근무제 도입 1년...IT업계 미해결 과제 산적', 2019.9

※ 본 이슈리포트의 내용은 무단 전재할 수 없으며, 인용할 경우, 반드시 원문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.